

# 기후변화협상의 이해

## 2차시. 기후변화협상 개요

# 1. 발리 행동계획에서 더반 플랫폼까지

## 1) 발리 행동계획(BAP: Bali Action Plan, COP13)

- 협상구조(2원화)
  - AWG-LCA: Ad hoc Working Group on Long-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
    - ※ 5개 의제: 장기비전(2050), 감축, 적응, 기술, 자원
  - AWG-KP :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 for Annex I Parties under Kyoto Protocol
    - ※ 주요 의제: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
- 개도국의 감축행동(NAMA)\* 명시
  - 발리행동계획 1 (b) (ii)의 기본구조: 개도국의 감축행동

- 개도국 NAMA + 선진국 지원 + MRV
- 발리행동계획 1(b)(ii) : “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(**NAMAs**) by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, supported and enabled by technology, financing and capacity – building, in a measurable, reportable, and verifiable (**MRV**) manner.

## 2) 코펜하겐 어코드와 칸쿤 합의

	회의 결과	의의	시사점
'09 코펜하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POST 2012 기후 체제 구축 실패</li> <li>- 코펜하겐 합의문 미채택(총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각국정상 최초참석</li> <li>- 각국 정치 의제화</li> <li>◦Public awareness 제고</li> <li>◦ 녹색성장 개념의 보편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녹색성장의 추진 필요( POST 2012 기후체제 구축 실패 불구)</li> <li>-&gt;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 노력 필요</li> </ul>
'10 칸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코펜하겐 플러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POST2012 기후체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협상체제의 UN</li> </ul>

	로서의 캔쿤합의문 채택(총회 결정문)	구축을 위한 1단계 출발(현상 체제 유지)	Process 전(정)통성 견지 -> 다자 협상 유치노 력 필요
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### 3) 더반회의의 주요결과

	선진국	개도국
감축의 전제 조건	<b>Action for Action :</b> 선진-개도국간 감축행동 연계	<b>Action for Money :</b> 개도국 감축행동과 선진국 재정지원 연계
요구 법적 체제	<b>Single legally binding instrument :</b> 단일한, 법적구속력 있는 체 제	<b>Two-track :</b> 1)*KP-track(선진국):교토의정서 연장 2)LCA-track(개도국):자발적 감축
더반 회의 결과 (Packa ge Deal)	녹색기후기금의 출범(적응위원회 · 기술메카니즘 설립 등)	
	2020년 이후 모든 국가 참여 단일기후체제 형성**	2013년 이후 선진국참여 교토의정서 연장(2020년까지 예상)

\* AWG-KP: Ad-hoc Working Group on Kyoto Protocol

AWG-LCA: Ad-hoc Working Group on Long-term Cooperative Action

\*\* 3가지 법적형태: ①protocol,②legal instrument,③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

## 2. 협상그룹별 입장의 이해

### 1) 기후변화 협상의 구조

#### 가. 협상의 성격과 효과

	다자(유엔프로세스)	지역·소규모 다자	양자
협상 주체	194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MEF(Major Economies Forum, 미국주도)</li> <li>· 피터스버그 기후 각료회의 (독일주도)</li> <li>· 기후변화협약 내 그룹별 회의</li> <li>· G20</li> </ul>	미국, 중국, 일본 등 각 당사국
상호 관계	협상의 <b>주 프로세스</b>	유엔 프로세스 <b>보완</b>	유엔 프로세스 <b>보완</b>
기대성과 우선순위	국격 제고	국격/실익	실익 제고
회의진행의 효율성	비효율	비교적 효율	효율

※ MEF(Major Economies Forum): G8, 한국, 중국, 인도, 호주, 인니, 멕시코, 브라질, 남아공, EU 의장국으로 구성

※ 기후변화협약 내 그룹별 회의

- i) 지역그룹(5개) : 아시아, 아프리카, 중남미 아메리카(GRULAC 33개국), 서유럽 및 기타
- ii) 주요 협상그룹
  - 선진국 그룹: Umbrella 그룹(미국·일본·호주·캐나다·러시아 등 참여), EU그룹(27개국)
  - 개도국 그룹: G77/중국(130개국), 군소도서국가(AOSIS, 39개국), 최빈개도국, 아랍연맹
  - 기타 그룹: 환경건전성 그룹(EIG, **한국**·스위스·멕시코·모나코·리히슈타인 5개국)
  - 우리나라의 경우, 높은 대외 의존도(약70%)를 감안, 협상주체가 적을수록 우리나라에 게 불리한 구조

- 따라서, **우리나라**는 기후변화협상시 **UN다자체제의 process 유지가** **긴요**

## 나. 선후진국 입장의 첨예한 대립

	선진국	개도국
기본대응	Action for Action*	Action for Money**
합의 결과물의 형태	Single legal instrument - 교토의정서 폐기 의미	Two-track - 교토의정서 체제 유지
감축	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 및 검증 (legally binding)	선진국의 수준 높은 선도적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
재원	시장 매커니즘 활용 선호	선진국의 GDP 0.5~1% 요구 (ODA추가분)

\* **Action for Action** : 선진국의 의무감축을 위해서는 중국 등 주요배출 개도국들의 의무감축이 필요

\*\* **Action for Money** :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도국의 감축행동이 필요하나,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재정지원이 필수

- 기후변화는 선진국에 역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있어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(협약상)
  - 기후변화협상은 개도국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구조
- 지난 2011년 더반 총회시 선진·개도국 내의 의견 분열이 최초로 발생
  - 향후 협상 구조의 복잡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

## 다. 협상 의제수: 하나 vs. 다수 의제

- 주로 양자 협상시 1개의 의제에 대한 협상 진행
  - 이는 당사자 이해관계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크므로 갈등 가속화 우려
  - 따라서, 의견상 1개의 의제로 보이는 경우에도 다수의 의제화로 할 수 있으면 다수 의제로 협상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
- 다수 의제 협상시: package deal 시도가 효과적

- 주요 의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대방 관심의 다른 의제를 파악하여 이를 연계시키는 것도 협상 타결의 한 전략

## 라. 국내 비준 의무의 존재

- 국제조약 체결시 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최종적인 효력은 국내 비준의 의결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
  - 서명 및 비준기간 동안 상대측으로부터 최후 순간의 양보 획득 가능
    - ※ case : 미국의 경우 미국내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leverage로 삼고 협상 진행
- 국내적 상황의 어려움을 leverage로 활용하여 협상에 대처하는 방안 모색 가능

## 마. 기후변화협상 진전의 애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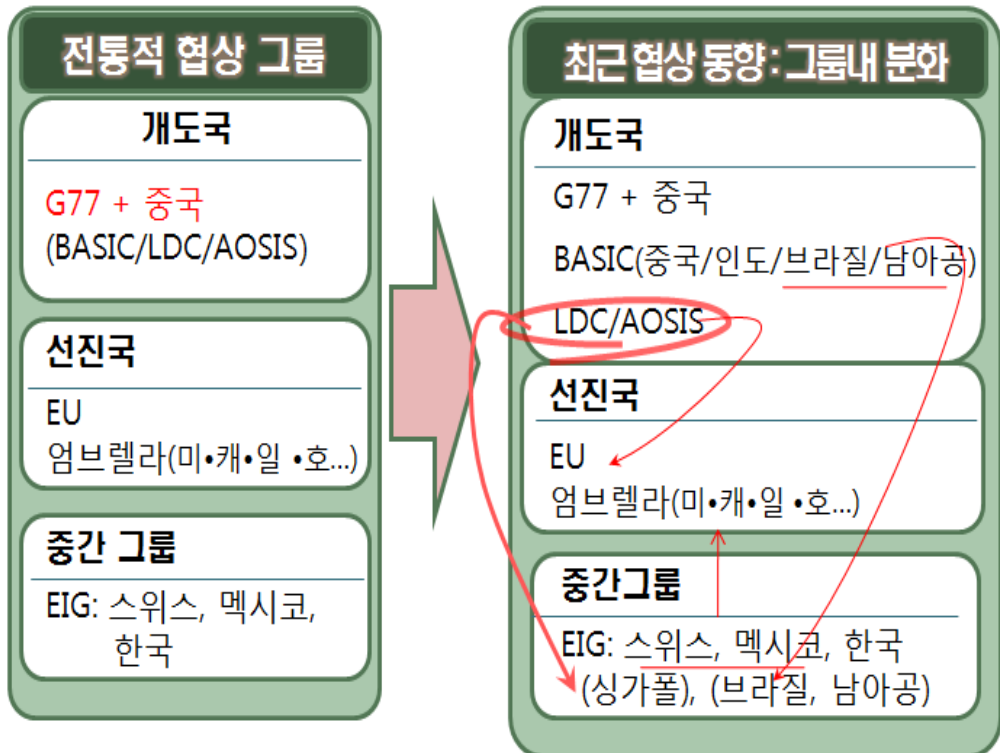
-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국(선진국)과 주요 피해국(개도국)이 상이
  - 해결 모색의 진전 속도가 지연
-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안 모색(신재생에너지 등) 장기화 및 비용부담 가중
- 기후변화협상 진전이 잘 된 사례
  - ※ case :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(1985년) 및 몬트리올 의정서(1987년) 채택 및 발효시 신속히 진행
    - 원인제공국과 피해국(이) 동일(선진국, 피부암, 백내장 등)
    - 오존층 파괴 원인물질인 프레온가스(CFC)의 대체물질(HFC) 조기개발 후 판매 필요

## 2) 협상 그룹별 입장

	명 칭	구성 및 협상입장
개 도 국	G77 및 중국 (Group of 77 and China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구성) '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에서 구성 130여개 개도국 입장 대표</li> <li>· (입장) 선진국의 선도적 감축(교토의정서),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과 선진국 지원(Action for Money)</li> </ul>
	BASIC 그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구성) 경제성장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빠르게 증가(브라질, 남아프리카공화국, 인도, 중국)</li> <li>· (입장) 개도국 입장 대변(특히, Post-2020 기후변화체제 참여에 민감하게 대응)</li> </ul>
	군소도서국연합 (AOSIS) (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구성) 몰디브, 투발루 등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취약한 저지대국 및 도서국</li> <li>· (입장) 모든 배출국(개도국 포함) 기후변화에 선도적 대응(감축, 적응) 촉구(생존의 권리)</li> </ul>
	최빈개도국(LDC) (Least Developed Country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구성) 개발단계가 최저수준인 국가들(1인당 GNP 100불 미만 GNP 연관 제조업비율 10% 미만 문맹율 80% 이상)</li> <li>· (입장) AOSIS와 유사한 입장 표명</li> </ul>
선 진 국	유럽연합(EU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구성) '11년 현재 27개국으로서 협상과정에서 유럽위원회(EC) 및 의장국이 발언 등 협상 주도</li> <li>· (입장) 모든 배출국(개도국 포함)의 온실가스 감축 및 검증 동참(legally binding)</li> </ul>
	엄브렐라 그룹 (Umbrella Grou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구성) EU를 제외한 OECD 회원국(교토의정서 비준/미비준 국가가 혼재된 상태)</li> <li>· (입장) 모든 배출국(개도국 포함)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, 단 <b>Bottom-up 방식의 자발적 감축 주장</b></li> </ul>
기 타	환경건전성그룹(E I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00년 리히텐슈타인, 멕시코, 모나코, 한국, 스위스 등 5 개국으로 구성</li> <li>· 같은 정치적 성격의 협상그룹이라기 보다는 사안별로 공동 입장 개진</li> </ul>

- (최근 협상동향) 더반 총회 이후 나타난 개도국/선진국 내부 입장 분화가 더욱 심화
- 개도국 그룹내 군소도서국(AOSIS) 및 최빈개도국(LDC)가 기후 협상의 진전을 주장하

- 며 EU와 공조체계 유지(싱가폴은 중재자 역할 수행)
- BASIC그룹내 브라질·남아공이 사안별로 선진-개도국간 중재자역할을 수행
- 스위스, 멕시코는 선진국그룹과 유사한 입장을 취함



**참고문헌**

김찬우, 포스트 2012 기후변화 협상, 에코리브르  
 최재천외, 기후변화 교과서, 도요새  
 환경부, 2012 기후변화협상 편람  
 환경부, 기후변화협상문서집  
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편, 코펜하겐에서 칸쿤까지, 환경재단  
 박천규외 4인, 탄소, 사고 팔 준비가 되었나요?, 도요새